

# READING MECHANISM

2017 수능  
콰인 포퍼

고난도 기출 한 줄 씩 분석

실전에서 생각해야하는 독해법 정리

나국어 DESIGN BY. JH\_06

시간 날 비문학 분석 하나하나 써볼까 합니다.

이번 지문은 2017수능 과인 포퍼 지문인데요.

1. '총체주의'가 왜 '총체주의'인지.
2.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주장이 왜 '순환논증'에 빠지게 되는지.
3. 그래서 '과인'은 결국 총체주의를 통해 어떤 것을 주장하고자 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읽고 분석해봅시다.

해설은 4페이지 정도 될 건데 구어체로 써 있어서 읽기 편하실 겁니다.

㉑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㉒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㉓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㉕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㉖ 도달한다.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이군요. 아마 '논리를 통해 실제로 증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자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닐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읽어주시면 독해하는 데 있어 정보량을 상당히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포퍼도 아마 논리실증주의자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어쨌든 계속 읽어봅시다. 이들은 지식을 <수학적 지식과 논리학 지식 =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가 <>해 놓은 부분입니다. 2017 탄수화물 지문에서 경험했듯이 <셀룰로스와 같은 (=) 섬유소>, <녹말과 같은 (=) 비섬유소>와 같은 진술이 나올 때, 평가원은 자꾸 '='로 연결된 두 용어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지문에서 셀룰로스로 설명을 했다면 문제에서는 섬유소로 내거나, 지문에서 비섬유소로 설명을 했으면 문제에서는 녹말로 내거나 하는 등 말이죠.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는 앞으로 '처럼', '같은'으로 예시와 이어진 용어는 그 예시도 함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A, B, C와 같은 D> 이런 식으로 서술될 경우에는 외울 필요 없고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하나의 대상만 나올 경우에 지문 읽으면서 계속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문을 읽어봅시다.

지문 정리 : '논/실/주 & 포퍼'는 지식을 '경험 무관 = 수학, 논리 & 경험 의존 = 과학'으로 나눔.  
독해 메커니즘 1. 수식 관계는 동일시하여 지문 끝까지 끌고 가자.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 과학적 지식'**이니까**'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되겠네요. 납득할 수 있는 문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납득 후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 가설을 잘 어떻게 하면 과학적 지식이 되나 보군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 논/실/주&포퍼**'는 예측을 경험을 통해 판단하여 가설을 시험하는군요. 이때 예측은 가설로부터 나온 것이구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독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수능 비문학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이 아닙니다.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문단을 만들고, 결국 글을 이룹니다.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는 **꼭 위아래를 엮어가며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시어는 본체를 반드시 찾아야 하고, 위에서 언급된 개념은 아래로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그들은 당연히 논/실/주&포퍼입니다. 그리고 <'가설'과 '예측', '경험'>은 <과학적 지식 =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에 관련된 용어이니 엮어서 읽어야 합니다. **가설이 과학적 지식이 되는데, 예측은 가설로부터 나오고, 예측은 경험을 통해 시험되니, 과학적 지식은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맞겠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실전에서 완벽히 못하는 거 저도 압니다. 실전에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스스로 지문을 분석할 때는 <과학적 지식이 왜 경험에 의존 하는 지식인지 납득을 하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지문 내용으로 가능하잖아요?

지문 정리 : 경험 → 예측 → 가설 → 과학적 지식 = 과학적 지식이 경험에 의존

독해 메커니즘 1. 지시어는 본체를 찾아라

독해 메커니즘 2. 문장의 위 내용에 나온 용어가 또 언급된다면 최대한 붙여가며 읽는다. '이 문장을 납득했나?'을 중심으로.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 논/실/주는 '맞을 경우', 포퍼는 '틀리지 않을 경우'에 과학적 지식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된 것 같네요.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문에 체크, 네모, <> 등 편하신 기호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 둘이 왜 '저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문 내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분석할 때도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뒷부분은 이미 저희가 충분히 이해한 내용인 것 같으니 **힘을 빼도 되겠네요.** 이렇게 앞쪽에서 하나하나 납득하며 내려오다 보면 뒤에서 자연스럽게 시간단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원은 개념의 **재진술**을 무조건 해주니까요.

지문 정리 : 논/실/주는 '맞을 경우', 포퍼는 '틀리지 않을 경우'에 가설이 과학적 지식이 인정  
독해 메커니즘 1. 지문 내용으로 납득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크하고 넘어가기

**하지만 ㉠ 과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 왜? 논/실/주와 포퍼는 된다는데.. 왜 과인은 안되지.. (야매 Tip : 분석하실 때 문장 끝마다 '왜?', '그게 뭔데?', '어떻게?' 중 하나 붙여보세요. 아마 원하는 답이 갑자기 떠오를 수도...)

**예를 들어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 응? 예시입니다. 예시가 나오면 **'예시에 개념 적용'**을 떠올리세요. 평가원이 예시를 주는 이유는 어떻게든 학생들을 이해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읽었던 **개념**이 뭔지 떠올리고, 이를 **예시에 적용**해 보세요. 개념은 '과인은 가설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를 이제 예시에 적용해 봅시다.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 = 가설>로는 <열을 받은 M은 팽창할 것이다. = 예측> →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로는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이 논리적으로 나오지 못하는군. 이런 식으로 말이죠.

독해 메커니즘1. 예시에 개념을 적용하자. (이제 '예개적'이라 쓰겠습니다. 수업 때도 줄여서..)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 예측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려면 '기존의 지식'과 '조건'이 필요하나 보네요.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 아하!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 여러 조건>이 필요하군요. **재진술**일 뿐입니다. 머리에 스크래치를 남긴다는 생각으로 스윙 보고 가세요.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 그렇죠. 예측이 맞기위해 성립해야 하는 개념이 너무 많아요. 가설이 틀린건지.. 기존의 지식이 틀린건지... (이게 납득입니다.)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 콰인은 그래서 '총체주의'를 주장하네요. <전체 지식(= 총체)이 시험의 대상>이니까 <총체/주의>겠네요.(납득) **경험을 통해** 시험을 해야 한답니다. 앞에서 나온 개념이죠? 과학적 지식과 비슷한 개념이네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 논/실/주& 포퍼 : <경험과 무관 = 분석 명제>, <경험을 통해(경험에 의존) = 종합 명제>라고 하네요. 수식 관계 잡으시구요. 아까 읽었던 개념에 용어만 추가됐네요. 쫓지 말고 계속 갑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콰인은 총체/주의를 주장합니다. 즉, '전체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구분하는 '논/실/주&포퍼'의 주장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 구분'은 윗 문장에서 나온 지식의 구분이겠죠? **지시어 본체 찾으면서 갑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 드디어 헬구간 진입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분석해봅시다. 일단 이 문장은 <콰인이 지식의 구분을 부정하기 위해 내세운 논증>입니다. 총각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 문장이 나온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쫓든, 지문 정리 해봅시다.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 동어/반복/명제(실제로 같은 말을 반복 했네요. **단어 의미 살리기**)>,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 동어/반복/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명제>는 분석 명제라고 합니다. 분석 명제가 뭐였죠? '경험과 무관한 명제'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개념이 나왔을 때, 기억 안 날 경우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기억 안나면 꼭 올라가서 확인하고 내려오세요.

지문 정리 : 동어/반복/명제와 동어/반복/명제로 환원 가능한 명제는 모두 '분석 명제'이다.  
독해 메커니즘 1. 문장의 윗 내용에 나온 용어가 또 언급된다면 최대한 붙여가며 읽는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이해가 안됩니다. 쫓든 <후자 =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 (동어/반복/명제로 환원 할 수 있는 명제)>임을 잡고(전자도 마찬가지로 지시어 본체 찾으세요.) 가야 합니다. 후자가 분석 명제인 건 전자로 바꿀 수 있어서라네요...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 이러한 환원(=후자를 전자로), 지시어 본체 찾으시구요.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하 미성남)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에 환원이 가능하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미성남을 총각으로 바꾸면 후자와 전자가 똑같아지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동의적 표현이라 하기에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둘을 대체해도 명제의 참, 거짓이 바뀌지 않아서라네요. 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 <이것 = 명제의 참, 거짓이 바뀌지 않음>이죠? 이걸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답니다. 왜일까요? 참, 거짓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사과는 빨강다.>라는 명제와 <사과는 과일이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빨강다와 과일은 동의적 표현>인가요? 명제는 둘 다 참으로 갖지만 명제의 뒷 부분을 같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적 표현은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 필연성 개념>에 의존해야 하네요. ‘반드시’ 대체 가능하니까 ‘필연성’이나 봅니다.(납득) 뭔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이해가 잘 안되니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 <이렇게 되면 = 위 문장> 지시어 계속 잡아야 합니다.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된대네요? 무슨 소리야 이게 ㅋㅋㅋㅋ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써진 대로 최대한 해석을 해보면, 동의적 표현을 쓰니까 이게 후자의 명제(까먹으신 거 아니죠? 까먹으셨으면 올라가서 다시 보고 옵시다.)를 전자로 환원 가능하게 한다는 것?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되군요. 그런데 위와 같은 이유로 필연성 개념은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 다네요... 오호.. 무슨 개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럴 경우 실전에서는 그냥 <돌아와서 지문 보고 풀자.>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내려갑시다.

**따라서 좌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 도달한다.**

- 결국 좌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종합과 분석의 구분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네요...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좌인은 <총체/주의 = 지식의 구분이 없다는 생각>를 주장하니까 <지식을 구분하는 논/실/주&포퍼의 주장을 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과 종합의 구분이 깨지면 결국 전체 지식이 같아지는(= 총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정을 다시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왜 위와 같은 논증을 거치면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의 구분이 사라지는지> 이해해 봅시다.

1.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 하고 싶어서 '지식의 구분(= 분석 명제&종합 명제)'를 없애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논증을 제시하죠.
2. 논/실/주&포퍼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 = 동어/반복/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는 둘 다 분석 명제(= 경험과 무관)라고 한다네요.
3. 이는 <후자 = 전자>이기 때문이랍니다.
4. 그게 가능한 이유는 <총각 = 미성남>이기 때문이군요. 이를 동의적 표현이라 합니다.
5. 콰인이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이야?"하고 물어보면 논/실/주&포퍼는 <둘을 바꾸어도 명제의 참, 거짓이 바뀌지 않아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6.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의 대답으로는 <총각 = 미성남>인 이유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하다 = 필연성 개념>을 내세웁니다.
7. 결국 어떤 명제가 동의적 표현을 사용하면 동어/반복/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되겠네요. 둘은 같은 표현임이 입증되었으니까요.
8. 하지만 콰인은 이들의 주장이 <필연성 개념이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어> 순환론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실/주&포퍼는 <'총각=미성남' = 동어/반복/명제 = 분석명제>을 위해서 동의적 표현이라는 것을 가져오는데, **동의적 표현은 필연성 개념에 의존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필연성 개념이 뭐였죠?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 = 경험에 무관! = 분석명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논/실/주&포퍼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분석명제(동어/반복/명제)를 입증하기 위해서 분석명제(필연성 개념)에 의존한 것이죠.>

정리하자면, 분석명제에 해당하는 명제를 입증하기 위해 분석명제를 가져왔으니 결국 '순환론'에 빠진 것이 된 겁니다. 따라서 콰인이 주장한 것처럼 <분석명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분석명제를 입증하려면 분석명제를 가져와야 하니까)

이제 콰인이 주장하는 총체/주의는 정당화 되었겠군요. 경험에 무관한 분석명제란 것이 사라졌으니 경험에 의존하는 종합명제만 남았을 것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 역시나군요. 콰인은 지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중심부/지식, 주변부/지식 모두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위에서 콰인이 증명했듯이 분석명제는 없으니까요. 지문 내용 납득하고 갑시다. <주변부 지식은 **주변에 있으니까(납득의 과정)**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도 있고>, <중심부 지식은 **가운데 들어박혀 있으니까(납득의 과정)** 경험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는 않겠군요.>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 주변부는 충돌을 잘하니까 잘 바뀌고 중심부는 잘 안 바뀐답니다. 너무 당연하네요.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 아까 증명한 것처럼, 그리고 '총체'/주의니까 지식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콰인은 두 지식을 같은 종류라고 취급하겠죠.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콰인은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 = 논/실/주에 따르면 경험과 무관한 지식 = 분석명제>가 경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하네요.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 중심부나, 주변부나 모두 경험과 관련이 있으니 고민을 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 주변부는 별 타격이 없는데, 중심을 건드리면 전체 지식(= 총체)에 큰 타격이 있군요. 이 정도는 납득이 갑니다. 원래 중심을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예외'입니다. 제 수업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평가원에서 예외적인 내용이 나오면 문제에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논리입니다. 아무 데서나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 또한 스스로 지문을 만들면서 문제 포인트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주장하는 미시적인 출제 포인트는 <항상, ~에 상관없이, 모든 등(고정값), 예외, 특이한 진술>입니다. 물론 저것 말고도 항상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것들은 다른 지문에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모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말한 내용이네요. 지식의 변화도 <개별적으로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 '총체/주의'니까 지식이 수정되는 과정이겠네요.>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 너무 당연합니다.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총체주의에도 **한계**가 있군요. “A→A”가 틀릴 순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계, 효율성** 등의 단어는 평가원에서 자주 활용하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저는 이걸 문장의 ‘**자기화**’라고 하는데 문장을 읽고 스스로의 용어로(웬만하면 평가원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면 좋겠죠?) 바꾸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량을 텍스트 그대로 기억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만의 용어를 만들어서 특정 상황이 보일 때마다 줄인다면 정보량이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할 때나 한글, 엑셀을 사용할 때의 ‘단축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문 해설은 끝이 났습니다.

이 해설은 절대로 실전을 위한 해설이라 보시면 안됩니다. 다만, 제가 학생분들께 주장하는 것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문 내용을 근거로 최대한 납득하고, 앞 내용을 끌어오고(지시어도 같은 맥락이죠?), 위에서 나왔던 개념이 기억이 안나면 돌아가서 확인해 보고,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될 것 같은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실전에서 자신이 어떤 독해 메커니즘을 가지고 행동할 것인지 확실히 정해놓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한 행동 메커니즘을 각종 지문에 <적용하고 또 적용하는>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배우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자꾸 새로운 기출지문에, 또 여러번 봤던 기출 지문에 계속 적용하고 똑배기 깨지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현강 혹은 인강을 듣고 수특 연계를 대비해도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제발 지식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남는 것은 결국 국어 때문에 내년 이 시기에도 재종 혹은 독서실 책상 앞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 때문에 N수하는 수험생들이 괜히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점 분명히 마음 속 깊이 새기시고 올바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분들 항상 화이팅입니다.

## 칼럼 계획 및 참고 사항

- <화작 - 실전 : 2015 ~ 2020 분석>
- 비문학 분석 칼럼
- 한수 실모반 / 화작 10분 컷 특강 (한달컷) / 비문학 분석 마지막 기초반 관심 있으면 010-5691-5561로 연락주세요.
- 질문은 <https://open.kakao.com/o/suhUaELb>, 010-5691-5561 로 부담없이,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 오타 및 오류 제보는 쪽지, 댓글, 메일 등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 발견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 검토 인원 없이 혼자 작업하는 거라 오타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πππ

㉑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㉒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㉓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㉕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㉖ 도달한다.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 이제 다시 분석해 보면서 마무리 합시다.

1. ‘총체주의’가 왜 ‘총체주의’인지.
2.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주장이 왜 ‘순환논증’에 빠지게 되는지.
3. 그래서 ‘콰인’은 결국 총체주의를 통해 어떤 것을 주장하고자 했는지.